

신선이 사는 세계, 낙랑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박산로靑銅博山爐

이나경 | 104호 부여·삼한실 | 18:00~18:30

기원전 1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평양 석암리 219호 무덤에서는 금동金銅, 청동靑銅, 은銀, 칠漆, 옥玉 등 당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재질로 만든 다양하고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었습니다. 큰 덧널[木槨] 안에 시신을 안치한 널무덤[木棺] 2개를 가운데에 놓고 북쪽과 서쪽에 용도나 재질별로 부장품을 놓아 무덤의 주인이 죽어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낙랑군 설치 이후 평양 일대에 만들어진 무덤에서는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 온 유물과 흉노匈奴로 대표되는 북방계 유물, 한漢과의 관련성이 높은 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동박산로를 포함한 청동용기靑銅容器는 한계漢系 유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석암리 219호 무덤은 석암리 9호 무덤과 함께 청동용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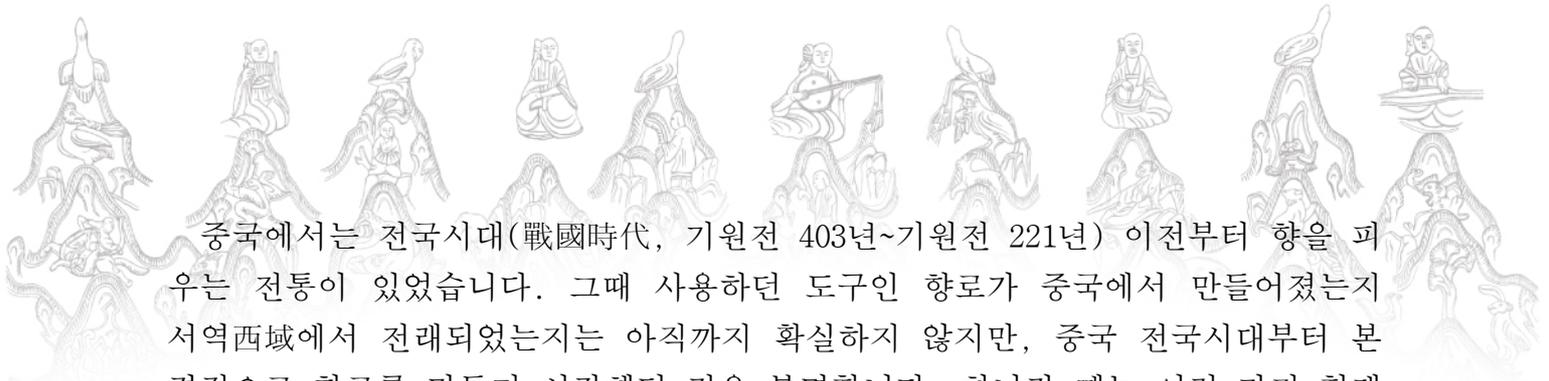
박산로는 제일 아래쪽의 받침대[承盤], 받침대와 향로를 이어 주는 기둥[爐柱], 그리고 제일 위쪽의 향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여러 겹의 산봉우리들과 산 정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1. 석암리 219호 무덤 출토 청동박산로



그림2. 석암리 9호 무덤 출토 청동박산로



중국에서는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년~기원전 221년) 이전부터 향을 피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도구인 향로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서역西域에서 전래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 전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향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나라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향로 중에서 산 모양의 뚜껑을 가진 ‘박산로(博山爐. 또는 博山香爐)’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꿈꿔 왔던 이상입니다. 전한(西漢, 기원전 202~기원후 8) 초기에는 노자老子的 무위철학無爲哲學에 기초한 황로도가사상黃老道家思想이 널리 퍼졌고, 신선神仙을 감응시켜 영생永生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신선이 거주하는 신성한 산을 표현한 박산로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신선 세계에 대한 염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나라 때 신선설神仙說이 크게 유행하면서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무제가 영토를 확장하며 한에 편입되었던 변방인 광시성[廣西省], 랴오닝성[遼寧省], 산시성[山西省] 그리고 한반도의 낙랑군에서도 박산로가 여러 점 발굴되었습니다.

제61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28일)

특별전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강건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은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대초원 문명과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정착과 이동을 반복하며 살아간 민족의 문화유산을 조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상징인 ‘황금인간’을 포함하여 450점이 넘는 전시품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번 전시가 초원 문명과 문화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라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초원의 문화와 문명이 숨 쉬는 카자흐스탄,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카자흐스탄,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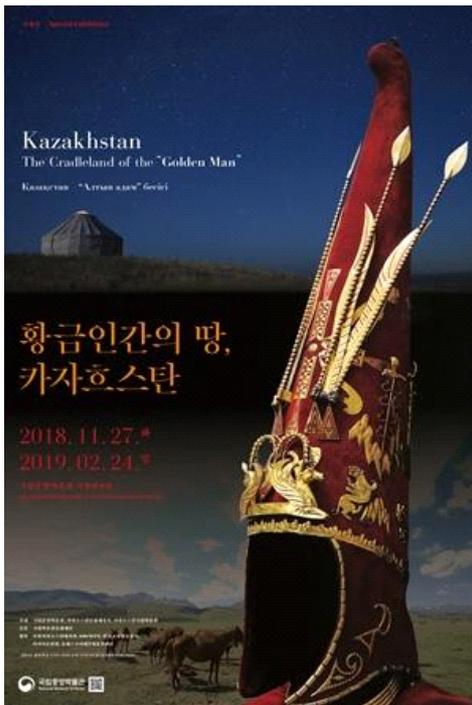


그림1. 포스터



그림2.
표범 모양 장식



그림3.
동물 머리 장식 제단



그림4.
말을 묘사한 장식



그림5.
세발 달린 솥

고인돌에서 발견된 간돌검

최정아 | 103호 청동기 · 고조선실 | 19:00~19:30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간석기는 청동기시대에 들어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청동기시대의 간석기는 달도끼와 별도끼, 반달돌칼, 화살촉 등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가 정연하며 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청동기시대 내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사용된 간돌검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을 수 있다.

보통 간돌검은 곧은 날을 가진 검몸과 손으로 쥘 수 있는 자루로 구성되나, 자루 없이 스페만 달린 것도 있다. 전자는 자루달린간돌검[유병식석검有柄式石劍]이고, 후자는 스페달린간돌검[유경식석검有莖式石劍]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간돌검은 자루와 검몸이 하나인 자루달린간돌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자루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 이른 시기에는 홈이 파인 홈자루간돌검[이단병식석검二段柄式石劍]이 유행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홈이 사라진 통자루간돌검[일단병식석검一段柄式石劍]이 주가 된다. 스페달린간돌검은 검몸을 돌로 만들고, 자루는 나무 등으로 따로 제작해 결합시킨 형식이다. 자루달린간돌검에 비해 크기가 작고 주로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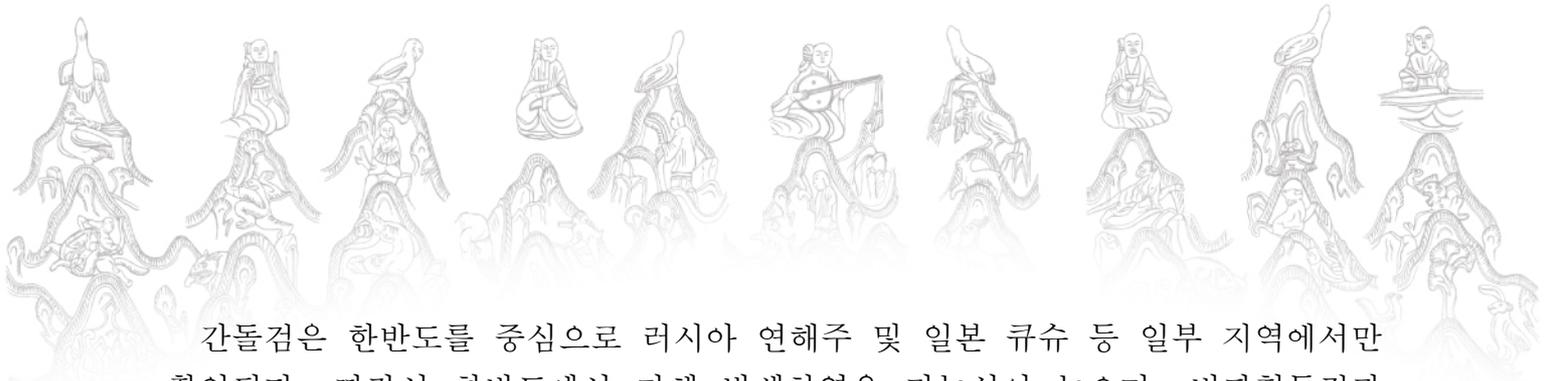
그림1. 스페달린간돌검
(좌: 곡성 연화리 고인돌,
우: 장흥 오복동 고인돌)



그림2. 홈자루간돌검
(대전 신대동 고인돌)



그림3. 통자루간돌검
(김해 무계리 고인돌)



간돌검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큐슈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자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파형동검과 같은 금속검의 영향을 받아 등장 시기부터 복잡하고 완성된 검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간돌검은 주거지와 같은 생활유적에서도 발견되나, 무덤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더 많다.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날의 사용 흔적이 없거나 길이가 매우 긴 것, 자루의 위아래가 크게 벌어지는 것 등 실제 무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돌검은 피장자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위신재(威信財)이자 부장품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덤 안이나 주변에 간돌검을 일부러 깨어 묻기도 하는데, 이는 매장과 관련된 의례 행위의 결과로 보인다. 또, 여수 오림동이나 포항 인비리 고인돌에서는 간돌검이 바위그림으로 그려져 기원과 신앙의 대상으로도 여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박성원 | 108호 신라실 | 19:00~19:30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北漢山 眞興王巡狩碑는 신라 제24대 왕 진흥왕(재위 540-576년)이 북한산에 세운 비석이다. 순수巡狩란 황제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천지 산천에 제사하고 지방의 정치, 민정을 시찰하던 풍습이다.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이 풍습을 따라 비석을 세웠다. 진흥왕 순수비는 모두 4기로 북한산, 창녕(561), 황초령(568), 마운령(568)이다. 진흥왕 순수비는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비봉碑峰에 있던 비석은, 1972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원 자리에는 2006년에 모형을 세웠다.

비석은 화강암을 직사각형으로 다듬고, 자연암반 위에 2단의 층을 만들어 세웠다. 비신碑身 높이는 약 155.1cm, 폭 약 71.5cm, 두께는 약 16.6cm이다. 원래 덮개돌, 몸돌, 받침돌로 구성되었지만 덮개돌은 사라졌고, 받침돌은 비봉에 그대로 있다. 뒷면에는 총탄 자국이 있다. 비면 글씨는 마모, 결실로 또렷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서체는 예서와 해서 혼용으로 보고 있다. 내용은 왕이 지방을 방문하는 목적, 비를 세운 까닭, 진흥왕의 영토확장 찬양, 순수에 참여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건립 시기는 비문에 간지와 연호가 남아있지 않아 《삼국사기》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데, 《삼국사기》의 “진흥왕이 16년(555)에 북한산을 순수하였다.” 진흥왕 16년(555)으로 보고 있다. 한편 568년 10월 이후에 세워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비석 내용이 마운령비, 황초령비와 비슷한 점과 비석의 남천군주南川軍主 기록 등에서 568년 10월 이후에 세워졌다고 본 견해이다.

진흥왕이 비석을 세웠다는 직접 기록이 없어 오랜 동안 비석의 존재는 알 수 없었고, 비석은 ‘무학대사왕심비無學大師枉尋碑’ 나 ‘몰자비沒字碑’ 등으로 불려왔다. 그러던 중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10여 자를 판독, 진흥왕 순수비라 이름 지었고, 순조 16년(1816) 김정희金正喜(1786~1856)가 김경연金敬淵(1778~1820)과 함께 비봉에 올라 이 비를 발견하고, ‘眞’ 자를 확인, 진흥왕 순수비임을 판명하였다. 1817년, 조인영趙寅永(1782~1850)과 함께 68자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비 옆면에 새겼다. “此新羅眞興大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 金敬淵來讀(이것은 신라진흥대왕 순수비이다. 병자년(1816년) 7월 김정희, 김경연이 와서 비문을 읽었다.)” “己未八月二十日 李濟鉉 龍仁人(기미년(1859) 8월 20일 용인사람 이제현)’ 다시 예서로 “丁丑六月八日 金正喜 趙寅永同來 審定殘字六十八字(정축년(1817)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이 함께 남아있는 글자 68자를 심정하였다.)”